

한국 청소년학의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

김 민**

초 록

본 연구의 주목적은 저자동시인용기법을 적용하여 국내 청소년학의 지적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인 청소년학연구와 한국청소년연구에 게재된 762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가장 많이 인용되어진 핵심저자 48명을 밝히고 청소년학의 지적구조에 대한 학문지도와 하위주제영역을 실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핵심저자들은 대부분 사회과학 전공자임이 밝혀졌다. 이는 이들의 학문적 배경이 사회과학영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이자, 국내 청소년학의 학문적 성립이 향후 사회과학 영역에서 주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저자동시인용기법을 통해 청소년학의 지적 구조를 분석한 결과, 먼저, 다차원척도 분석과 군집분석에 따라 2차원에 핵심저자들을 지도화하고 군집한 결과, X축으로는 학문적 배경에 따른 저자군집들로 나누어졌고, Y축으로는 연구관심 및 주제에 따라 개별 청소년과 청소년-외부환경과의 관계·상호작용 등으로 저자군집이 나누어졌다. 또한 요인분석을 통해 5개 집단의 뚜렷한 저자군집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청소년학의 주된 연구대상이 개별 청소년은 물론이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그리고 청소년과 사회 환경과의 밀접한 상호 교섭관계 등을 포괄함을 의미한다. 또한 군집분석과 요인분석을 통해 청소년학의 하위영역이 청소년일탈·비행 등 청소년문제에 대한 학문분야, 임상·발달심리·정신병리와 발달심리 등 심리학적 학문분야, 청소년교육·문화의 하위 학문분야, 복지 및 청소년정책 등의 하위분야,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학 일반분야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을 밝혔다.

주제어 : 청소년학, 지적 구조, 저자동시인용기법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발췌하여 재구성한 것임.

** 순천향대학교 교수

I. 서 론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청소년학’은 분과학문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였는가? 본 논문은 이 같은 의문으로부터 시작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청소년 관련학과가 고등교육기관에 설치되었고 이후 적잖은 기간 동안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정작 청소년학은 학문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스스로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였다.¹⁾ 소위 학문(學問)이라 함은, 엄정한 내적 논리에 의해 과학적으로 체계화한 인간의 지적 활동이자 그 산물의 집성(集成)으로 인간정신의 지적 능력의 실현, 혹은 지식 그 자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연구분야가 독립적인 학문분야로 성립되고 또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학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속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학문으로서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속성을 일컬어 ‘학문성’(characteristic of science)이라 하는데, 이는 학문이 함의하는 본래적 특질을 의미한다. 학문의 정립과 발전의 중핵적 요소인 학문성은 다시 학문의 ‘과학성’과 ‘사회성’으로 요약된다(Nagel, 1961; Whitley, 1975). 학문성의 핵심인 학문의 과학성과 사회성은 결코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활동 속에서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한완상·이기홍, 1987). 학문정립과 발전의 중핵적이고 상보적인 두 요건인 과학성과 사회성이 일정 학문의 범주 내에서 통합적으로 연관됨으로써 학문은 한편으로는 과학적·인지적 측면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제도적 측면에서 그 성격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한국의 청소년학은 학문으로서의 성격을 해명하고 구안하려는 실증적 연구노력이 충분치 못하였다. 즉, 청소년학의 학문적 과학성과 사회성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려는 연구노력이 미비하였다. 그런 가운데, 청소년학은 학문으로서의 정체감을 줄곧

1) 청소년관련학계가 청소년학의 학문적 성격을 전혀 검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한국청소년연구원(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전신)은 출범 초기 청소년관련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각 학문분야별로 종합적으로 살펴본 바 있고(한국청소년연구원, 1992), 한국청소년학회(1998, 1999, 2000)도 청소년학의 학문적 정체성의 수립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일련의 연구시도들을 해왔다. 또 연구자 개인에 따라 청소년학이 독립적 학문으로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과 과제들을 논의한 바도 있다(함중환, 1992; 한준상, 1992, 1999a, 1999b).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학문의 과학성과 사회성, 곧 학문성을 기준으로 검증한 연구라기보다는 분과학문으로서의 성장가능성 정도를 다른 학문분야 중심으로 탐색한 정도에 그친 한계를 가진다.

위협받아 왔고, 정책에 의해 이끌려오다시피 하였다.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로 청소년정책이 통합된 이래 청소년계의 많은 이들은 아동정책과의 통합을 우려하거나, 청소년정책의 역사가 되뇌이며 옳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에 비취 청소년학의 '이론적 속성'이 함의된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한 이는 거의 없다. 이는 청소년학에 대한 이론적 연구토대가 그만큼 부실하다는 방증에 다름 아니다. 또 다른 예로써 명백한 연구대상(청소년 혹은 청소년기)과 연구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학의 교과영역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혹은 사회복지사나 평생교육사란 국가검정자격증의 이수교과로 자리매김 되곤 하였다. 그러다보니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이 같은 국가검정자격의 이수교과로 구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학의 학문적 성격을 밝혀보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청소년학의 학문적 성격, 곧 학문의 과학성과 사회성을 부분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청소년학의 지적 구조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주요 선행연구물들을 대상으로 계량정보학(bibliometrics)의 한 분야인 저지동시인용기법을 사용하여 한국 청소년학의 지적 구조를 탐색하였다.

II. 학문의 지적 구조 접근방법

학문의 지적 구조(intellectual structure)란 학문의 지적 체계, 곧 구조화된 학문체계를 의미한다. 오늘날 학문이 어떤 학적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해명하는 학문의 지적 구조에 대한 탐색은 흔히 학문적 패러다임을 고찰하여 정상과학으로서의 학적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는 쿤의 패러다임 접근방법(Kuhn, 1962)과 함께, 해당 학문의 역사성과 실천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석학적으로 살펴보는 해석학적·정신과학적 접근방법(강돈구 외, 1990; 오인택, 1990; Scheuerl, 1992), 그리고 계량정보학에서 저지동시인용기법 등을 활용한 지적구조 해명방법(김현희, 1989; 이수상, 1999)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1. 패러다임 접근방법

토마스 쿤이 논의한 학문의 지적 구조 해명에 대한 그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개념인 패러다임과 정상과학이란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패러다임이라 함은 “어느 한 학문영역에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반 연구를 통합하는 이론적인 틀”을 일컫는다. 패러다임은 학계에서 인정 받은 실제 과학연구의 사례들이 학문적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과학연구의 일관성 있는 전통을 발생한다는 특성을 제시하려는 의도에서 쿤이 선택한 용어이다(Kuhn, 1962: 11). 정상과학은 “기존의 지배적 패러다임 내에서 수행되는 학문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학문의 학적 체계와 지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순으로 해당 학문의 패러다임이 있는지의 여부와 함께, 패러다임 내의 학문활동, 그리고 이를 통해 제공되는 과학연구의 일관성 있는 학적 전통을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문이 일정한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그 안에서 정상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학문분야의 생산물(저서, 학술지 게재논문, 학위논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 생산물들의 내용분석을 통한 특성분석과 함께 해당 학계에서 수행되어진 일체의 활동과 연구물들을 학사적(學史的)으로 조망한 후 이를 분석·평가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 학문공동체에서 일정한 이념적 지향성을 갖고 이론적 전망과 방법론적 가정을 견지한 일련의 학자들의 공식적·비공식적 집단인 학파를 중심으로 해당 학문의 지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명하려는 연구도 여기에 포함된다. 즉, 쿤의 지적 구조 해명방식은 먼저 학문으로서의 합의된 모형(패러다임)이 있는지, 그리고 그 패러다임 내에서 과학적인 학문적 활동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때 과학적 학문의 활동은 진술한 바와 같이 학문의 과학성과 사회성을 패러다임 내에서 일관성 있게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를 통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쿤의 패러다임 접근방법은 청소년학에 시사점을 준다. 무엇보다 청소년학이 일정한 패러다임으로서 학문적 모형으로 정립되어 있는지를 자문케 하고, 청소년학의 과학성과 사회성에 대한 학문적 논의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져 정상과학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최근 청소년관련학파가 개설된 대학(대학원)에서는 매 학기마다 많은 학위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학위논문들이 학문의 과학성에

비추어 얼마나 과학적·이론적으로 수준 높은 논문들인지, 그리고 청소년학이란 학문의 정체성과 정립가능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청소년관련학계는 이들 논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과 함께 내용분석을 통한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산물(저서, 학술지 게재논문)에 대한 동일한 시도들도 요구된다. 또 학문공동체를 포함한 학술적 커뮤니케이션(학문의 사회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도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석학적·정신과학적 접근방법

해석학적·정신과학적 접근방법은 학문의 보편성을 해명하고 이를 확립하려는 철학적 접근방법이다. 해석학은 역사적으로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와 그의 후계자인 딜타이(Dilthey)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강돈구 외, 1990). 이들에 의해 완성된 현대 해석학은, 모든 담화나 연구텍스트는 본질적으로 보편성과 개별성 혹은 언어와 인간(저자)이라는 이중성을 갖는다고 보고 이러한 이중성에 대한 해석학적 순환인식론을 발휘하여 대상(학문과 이론)의 존재론적 구조를 해명한다. 즉, 학문 내의 다양한 저작들은 텍스트 자체로서의 보편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저자의 개별 주제적 특성이 함의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편성과 개별성, 저작과 저자간의 이중성이 학적 체계에도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해석학적 방법을 통해 해명하려는 지적 체계의 대상은 단순히 저작물만이 아닌, 저작과 저자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저자의 지적 세계(사상)도 같이 파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슐라이어마허의 해석학적 접근은 후에 딜타이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 정신과학적 접근으로 완성되었다. 즉, 해석학적·정신과학적 접근은 슐라이어마허가 이룩한 해석학과 변증법, 플라톤 연구와 교육학 이론을 딜타이가 새롭게 재구성하고 딜타이의 제자들에 의해 활발히 연구됨으로써 탄생하였다. 특히 딜타이의 해석학은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의 자명성과 지적 체계를 해명하는데 있어 경험적 교육과학, 비판적 교육과학과 함께 정신과학적 교육과학으로 불리며 그 기능의 유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오인택, 1990).

해석학적·정신과학적 접근은 학문의 윤리적 규범들로부터 학문의 목적과 내용을 추론하고 이론을 정립하며 실천을 규정하려는 기존의 학문성격을 해명하려는 태도들

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학문의 영역 내에 포섭되어 있는 학설들에 나타나 있는 경험적 지식과, 이 지식들이 상징적으로 압축되어져 다양하며 또 서로 수많은 대조를 이루는 것을 비판적인 의식을 통해 하나의 고유한 학문적 영역으로 통합·해명하고자 한다(Scheuerl, 1992: 157).

학문의 성격과 지적 체계를 해명하려는 해석학적·정신과학적 접근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다(오인탁, 1990: 204-205). 첫째, 한 학문의 이론 내에서 그 이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이른바 내적 비판의 방법이다. 이러한 내적 비판은 폐쇄적으로 한 이론을 가르치려 하거나 직선적으로 학문의 성격, 방법과 논리, 이론에 대한 일련의 사고 진행을 거부하며 이를 초극(超克)하게 만든다. 둘째, 여러 상이한 입장들 간의 논쟁을 통하여 개별 입장들의 개념, 논리, 이론의 편중과 결함 또는 논리적 오류를 드러내는 방법이다. 상이한 입장과 논의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이론의 정치를 기하고자 하는 방법을 뜻한다. 셋째, 이론과 실천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연구하면서 어떤 전제나 이해가 그 이론의 바탕에 깔려 있으며 상이한 패러다임들이 학문적 실천을 상이하게 하는데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다(오인탁·윤재홍, 1992; 윤재홍, 1992).

이 접근방법은 청소년학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이 접근방법은 학문의 역사성과 실천성을 해명하기 위해 청소년관련학계의 주요 학자들이 일관성 있는 학문의 세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그의 저작을 통해 분석하고 해명할 것을 주장한다. 학문은 곧 학자에 의해 세워지는 영역이자 세계다. 따라서 학문의 주요 주체인 학자들이 일관된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입장을 저작을 통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해당 학문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다. 청소년관련학계의 많은 학자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엄정한 평가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아가 이들 이론이 갖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에 일정한 학설로 존재하는지를 구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명을 통해 학자들에 의해 드러난 경험적 지식과, 이 지식들이 상징적으로 표상하는 학설들을 비판적으로 비교하여 청소년학 전체의 입장에서 하나의 고유한 학문적 영역으로 통합·해명하는 이론적 시도들이 요구된다.

3. 저자동시인용기법을 활용한 계량정보학적 접근방법

쿤의 패러다임 접근방법을 수학 및 통계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학문의 지적구조를 살펴보는 방법이 바로 계량정보학의 저자동시인용기법이다. 계량정보학은 지적 구조에 대한 연구경향에 따라 학문의 구조를 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최근 많이 사용되며 영향력이 있다고 증명된 연구방법이다(조명희, 1993; 윤구호·서말숙, 2001; 이은숙·정영미, 2002; 이수범·권영순, 2006; 이재운, 2006; 2007; 이재운 외, 2007). 계량정보학은 논문, 저서, 보고서 등이 명시화하는 지식을 대상으로 수학적, 통계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Pritchard, 1969), 문헌 속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해 지식생산의 구조와 역동적 측면을 이해하고 이로부터 규칙을 찾아내어 학문으로서의 지적 체계를 탐색하는 방법이다. 계량정보학은 과학연구의 본질이 지식의 생산에 있고 과학문헌은 그러한 지식이 표현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과학연구의 결과물인 출판물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연구흐름을 표현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 이 지표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된 학문의 지적 구조를 표현하는 상징이라고 전제한다(윤문섭·안규정, 2003).

이처럼 가시화된 지표를 통해 학문의 지적 체계를 해명하는 계량정보학의 장점에 대해 린(Lin, 2004)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연구물을 분석하여 주제의 범위, 언어, 자료의 형식, 학자집단, 또는 이론적 접근 등의 개념을 이용하여 학문집단이나 영역특성을 기술하는데 유용하다(Borgman, 1989). 둘째, 학문의 역사적 발전양상을 연구하는데도 유용하다. 학문의 구조적 변화는 기존 논문에 의해 반영된 것으로, 예를 들면 시대별로 저널에 게재된 논문들이 인용하고 있는 문헌들의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학문의 흐름을 파악하고 나아가 해당 학문의 발전과 영속성,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설명·예측할 수 있다(Hinze, 1994; McCain & Whitney, 1994; Small, 1973; 1993). 특히 학자들 간 학술커뮤니케이션 경향을 파악하고 해당 학문의 지적 구조를 탐색하는 데에도 유용하다(McCain, 1984).

계량정보학의 한 방법인 저자동시인용기법은 분석단위를 문헌으로부터 저자의 저작물 총체로 바꾸어 저자의 동시인용빈도수와 그 외 다른 통계기법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 연구자의 단일 연구결과가 과학혁명의 새로운 학술 패러다임을 촉진시킬 수도 있지만, 연구자가 쓴 저작물 총체도 그 분야의 지적구조를 밝히는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자동시인용기법은 학문의 지적 구조를 해명하는 효과적인 연구방법으로 등

장하였다(조명희, 1992: 333-334). 특히 동시인용빈도의 측정결과 빈도가 높은 문헌 간에는 밀접한 주제관계가 있으며, 문헌 간에 주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Small, 1973) 이래 이 분야의 연구는 급격히 진전하였다. 동시인용빈도의 측정으로 문헌간의 유사성이 수량화되고, 이 수치에 근거하여 각 문헌이 이차원 이상의 공간에 지도화(mapping), 군집화됨으로써 학술문헌, 나아가 학술문헌의 생산근원인 학문영역의 구조가 위치도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지적 구조의 지도화라 하며 그 결과 나타난 지도를 학문도(學問圖)라 칭한다. 이와 같이 저자동시인용기법은 학문영역의 생성, 성장, 소멸을 표현하는 간접지표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인지적 구조의 지표가 된다(Bellardo, 1980). 이처럼 저자동시인용기법은 저자가 쓴 저작물의 총체를 뜻하는 각 저자명을 이용하여 지도화하는 방법으로 저자들로 구성된 군집은 특정 주제 분야의 하위주제, 연구경향, 연구방법 등과 같은 지적 구조뿐만 아니라 학자간의 동질성 및 개인적 유대관계 등 사회적 구조도 반영한다. 이 방법은 한 주제 분야 내에 지식의 흐름을 섬세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일반연구자들도 동시인용 자료를 수집하여 지적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저자동시인용분석에는 학문의 지적구조 또는 저자간의 관계를 다차원적인 공간개념에 표현하기 위해 통상 다차원 척도법, 군집분석, 요인분석 등을 이용한다.

저자동시인용기법은 현재까지 다양한 학문의 지적 구조를 해명하는 방법으로 국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용되었다(이명옥, 1996; 윤구호·서말숙, 2001; 이수범·권영순, 2006; 김영준, 2007). 저자동시인용기법을 이용하여 특정 주제분야의 학문구조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한 연구로서는 홉킨스(Hopkins, 1984)의 연구가 최초이다. 그는 일찍이 물린스(Mullins, 1977)가 미국 사회학 분야에서 새로이 생성되고 있는 두개의 이론집단이라고 규명한 인과이론과 민족적 방법론에 대한 추적연구를 통하여 두 연구영역이 사회학 분야의 학문구조에 나타나고 있음을 밝혀 물린스의 예측이 실현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저자동시인용기법에 이용한 후속연구로는 맥케인을 들 수 있다. 그는 거시경제학 영역을 두 시기로 나누어 학문구조의 변화를 입증하였으며(McCain, 1984), 초과리 유전학분야에도 적용하여 학문영역의 지적, 역사적인 발전상황을 입증한 바 있다(McCain, 1986).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저자동시인용기법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해 일차적으로 대상문헌을 선정한 후 여기서 분석대상이 될 핵심저자들을 추출해야 한다. 대상문헌은 2007년 10월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등록된 학술지, 즉 한국청소년학회에서 발간하는 <청소년학연구>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한국청소년연구> 등 2종이 해당된다. 학술지 위상에 따라 연구자들의 성과가 활발히 집성된다는 점에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한정하였다. 분석대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각각 1990년(한국청소년연구)과 1993년(청소년학연구)부터 2006년까지 게재된 논문들이다.

분석대상 학술지와 여기에 게재된 논문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청소년연구>는 2006년 제17권 제2호에 이르기까지 총 434편의 논문을 일차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외국문헌만 있거나(23편), 참고문헌이 없는 논문(36편), 논문이 아닌 서평(2편), 번역원고(4편), 현장기고(7편), 기타자료(16편) 등 88편을 제외한 346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청소년학연구>는 전체 437편의 게재논문 중 외국문헌만 있거나(17편), 참고문헌이 없는 논문(4편) 등 21편을 제외한 416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종의 학술지에 게재된 871편의 논문 중 저자동시인용기법을 활용하기가 불가능한 109편을 제외하여 최종 762편의 논문을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참고: 표 1).

<표 1> 분석대상 학술지 게재논문 현황(1990년-2006년 기준)

(단위: 편)

구분	전체 논문	분석대상 제외 논문 유형							분석대상 논문
		외국문헌	참고문헌 없음	서평	번역 원고	현장기고	기타자료	제외논문	
한국청소년연구	434	23	36	2	4	7	16	88	346
청소년학연구	437	17	4	-	-	-	-	21	416
계	871	40	40	2	4	7	16	109	762

2. 핵심저자 선정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762편의 논문에서 인용된 참고문헌 중 외국문헌이나 학술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운 문헌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된 참고문헌(총 14,264편)을 확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참고문헌 저자들을 다시 빈도분석을 통해 20회 이상 인용빈도가 있는 저자를 선정하여 가장 많은 빈도수부터 48명의 저자를 일련의 저자번호(01-48)를 부여하여 분석대상 핵심저자로 선정하였다(참고: 표 2).

3. 동시인용빈도의 추출과 통계기법

48명의 핵심저자를 선정한 후 대상 저자들을 인용한 연구문헌들을 분석하여 두 명의 학자들이 동시에 언급한 연구논문의 횟수를 조사하였다. 동시인용빈도의 추출은 수집된 인용데이터를 불리안 연산자 AND논리로 저자들의 동시인용빈도를 추출하였으며 이 빈도수로 저자동시인용빈도 행렬을 구하였다. 이어 저자동시인용빈도행렬은 SPSS 14.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로 변환하였다. 저자동시인용기법에서 동시인용빈도행렬을 피어슨 상관계수 행렬로 변환하는 이유는 값의 정규화 효과와 저자 쌍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White & Griffith, 1981; Kreuzman, 2001). 상관계수 행렬은 다차원척도(MDS) 분석과 군집분석, 요인분석의 입력데이터로 사용하였다.

<표 2> 분석대상 핵심저자

저자번호	저자명	인용빈도	저자번호	저자명	인용빈도	저자번호	저자명	인용빈도
01	김준호	88	17	황정규	32	33	김은경	23
02	조아미	59	18	노성호	29	34	오치선	23
03	권이종	53	19	최충옥	29	35	김성이	22
04	윤진	45	20	이춘재	28	36	유안진	22
05	김혜원	43	21	조한혜정	28	37	윤영민	22
06	이용교	43	22	도종수	27	38	천정웅	22
07	한준상	43	23	조영승	27	39	박창남	21

저자번호	저자명	인용빈도	저자번호	저자명	인용빈도	저자번호	저자명	인용빈도
08	최윤진	42	24	장휘숙	26	40	원호택	21
09	이광호	41	25	황상민	26	41	이동원	21
10	곽금주	40	26	구본용	25	42	정원식	21
11	한상철	39	27	김경희	25	43	표갑수	21
12	김영희	37	28	이성식	25	44	권일남	20
13	오경자	36	29	차경수	25	45	김정명	20
14	이해경	35	30	심영희	24	46	김정희	20
15	김영모	33	31	이명화	24	47	박정선	20
16	양돈규	32	32	홍강의	24	48	이재창	20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핵심저자 분석결과

핵심저자들은 저자동시인용기법 절차에 따라 저자동시인용빈도행렬의 소스데이터가 되고, 이를 피어슨 적률상관계수행렬로 변환시켜 다시 다차원척도 및 군집분석과 요인분석의 입력데이터로 삼았다는 점에서 본 분석기법의 핵심 대상이다. 특히 이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의 학문지도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학적 배경과 소속 및 전공현황 등의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나이가 군집분석 및 요인분석을 통해 이들 간의 밀접한 군집형성 정도를 통해 학과형성 가능성 및 지적 관계의 친밀도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용한 일차적 자료이다. 먼저 <표 3>과 같이 핵심저자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학·기관·시설과 이들의 세부 전공분야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3> 분석대상 핵심저자 소속학과 및 전공분야

번호	저자명	소속학과	전공분야	번호	저자명	소속학과	전공분야
01	김준호	사회학과	사회심리/일탈과 범죄사회학	25	황상민	심리학과	사회/문화심리
02	조아미	청소년지도학과	교육심리	26	구본용	교육대학원	교육상담
03	권이중	교육과학부(전)	교육사회학	27	김경희	아동가족학과	발달/노년심리
04	윤진	심리학과(전)	사회심리/일탈과 범죄사회학	28	이성식	정보사회학	사회심리/일탈과 범죄사회학
05	김혜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심리과학(발달심리)	29	차경수	사회교육학과	윤리교육학
06	이용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정책	30	심영희	사회학과	가족/성의 사회학
07	한준상	교육학과	교육사회학	31	이명화	아하센터	교육상담
08	최윤진	청소년학과	교육철학/사상	32	홍강의	의학	소아정신분석
09	이광호	청소년학과	교육철학/사상	33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회심리/일탈과 범죄사회학
10	곽금주	심리학과	발달/노년심리	34	오치선	청소년지도학과	청소년사회교육
11	한상철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육심리	35	김성이	사회복지학과	청소년복지
12	김영희	아동가족복지학과	가족상담 및 교육	36	유안진	소비자이동학	교육심리
13	오경자	심리학과	임상심리	37	윤영민	정보사회학과	정보/과학기술 사회학
14	이해경	교육학과	교육심리	38	천정웅	이오와대학연구원	국제정치경제
15	김영모	사회복지학과(전)	사회복지정책	39	박창남	청소년복지전공	청소년복지
16	양돈규	교양학부	발달/노년심리	40	원호택	심리학과(전)	교육심리
17	황정규	교육학과	교육평가	41	이동원	사회학과	가족/성의 사회학
18	노성호	경찰행정학과	사회심리/일탈과 범죄사회학	42	정원식	교육학과(전)	교육심리
19	최충욱	교직과	교육사회학	43	표갑수	사회복지학과	이동복지
20	이춘재	심리학과	발달/노년심리	44	권일남	청소년지도학과	농촌사회교육(평생교육)
21	조한혜정	사회학과	문화인류학	45	김정명	체육학부	스포츠철학
22	도중수	청소년복지전공	사회복지정책	46	김정희	심리학과	상담심리
23	조영송	청소년학과(전)	교육행정	47	박정선	행정학과	사회심리/일탈과 범죄사회학
24	장휘숙	심리학과	발달/노년심리	48	이재창	교육학과	교육상담

※ 전공분야는 핵심저자의 최종학력(박사학위) 세부전공을 의미함. 세부전공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통합연구인력정보를 기준으로 하였음.

이중 대다수(93.8%)가 2007년 12월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이어 이들의 소속학과별·세부 전공별 분포현황을 살펴본 결과, 소속별로 청소년관련학과·전공 소속 핵심저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²⁾, 이어 심리학과 소속

2) 도중수, 박창남 교수는 해당대학 사회복지학부 내 청소년복지전공에 소속되어 있어 사회복지학과 소속으로도 분류가능하나 여기서는 청소년관련학과전공으로 분류하였다. 이유는 소속 대학 및 전공이 청소년관련학과전공을 표방하고 있으며, 학과·전공명칭에 ‘청소년’이란 용어가 들어가고 전임교수가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저자가 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대학별로는 연세대가 3명(윤진, 오경자, 황상민)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대(곽금주, 원호택)였다. 카톨릭대(이춘재), 충남대(장휘숙), 전북대(김정희)는 각각 1명이었다. 사회학과와 교육학과에 재직 중이거나 혹은 재직하였던 핵심저자들은 각각 6명씩 분포하였고, 사회복지학과 소속 교수는 5명이다. 이외에도 아동학과와 행정학과가 각각 2명이었고, 그 외의 핵심저자들은 기타 소속으로 교양학부, 교직과, 교육대학원 등에 소속되었다. 청소년관련학과·전공 및 심리학과와 비교해 학교별로 집중되지 않고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세부전공 분포현황을 살펴본 결과 교육심리·사회심리/일탈과 범죄사회학·발달/노년심리가 각 6명씩 분포되어 가장 많은 전공영역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육상담/상담심리가 4명이었고 교육사회학·사회복지정책(3명), 교육철학/사상·가족/성의 사회학·청소년복지가 각각 2명의 순이었다.

다음에는 저자들의 세부전공을 학진 연구분야분류표를 기준으로 세부전공을 살펴보았다(참고: 표 4). 먼저 대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과학 영역에 속하는 핵심저자가 3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복합학의 심리과학이 7명이었고 인문학·자연과학·의약학·농수해양·예술체육이 각 1명이었다. 이 중 학문의 일반적 분류기준으로 복합학과 농수해양 등이 사회과학에 포함 가능하므로 결국 48명 중 44명의 핵심저자가 사회과학 내에 소속된 셈이어서, 핵심저자 집단의 학문적 배경이 대부분 사회과학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엔 중분류 기준으로 핵심저자들의 세부전공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사회과학 내 교육학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회학 9명, 복합학의 심리과학 7명, 사회복지학 6명이었으며, 이외 영역에서 각 1명씩의 분포현황이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핵심저자들은 사회과학내 교육학을 포함하여 사회학, 사회복지학, 복합학의 심리과학 등에 다수가 속하면서 이들의 활발한 학문활동 및 연구가 분석대상 학술지들에서 적극 인용·참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핵심저자들의 학문적 배경을 기준으로 살펴본 청소년연구의 학문적 성격은 사회과학에 매우 가깝다. 특히 청소년관련학과 및 전공 교수인력들의 전공분포 현황에 따른 학문적 지향은 향후 국내 청소년학의 학적 정립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핵심저자들의 학적 배경은 곧 국내 청소년연구의 실상을 드러내는 좌표이자 대체로 이들의 학문적 배경과 방향, 연구주제들이 청소년학의 학적 성립에 주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 내 청소년학이 자연과학)생활과학)아동학)청소년학으로 분류되는 현실과 상치(相馳)되고 있음을 실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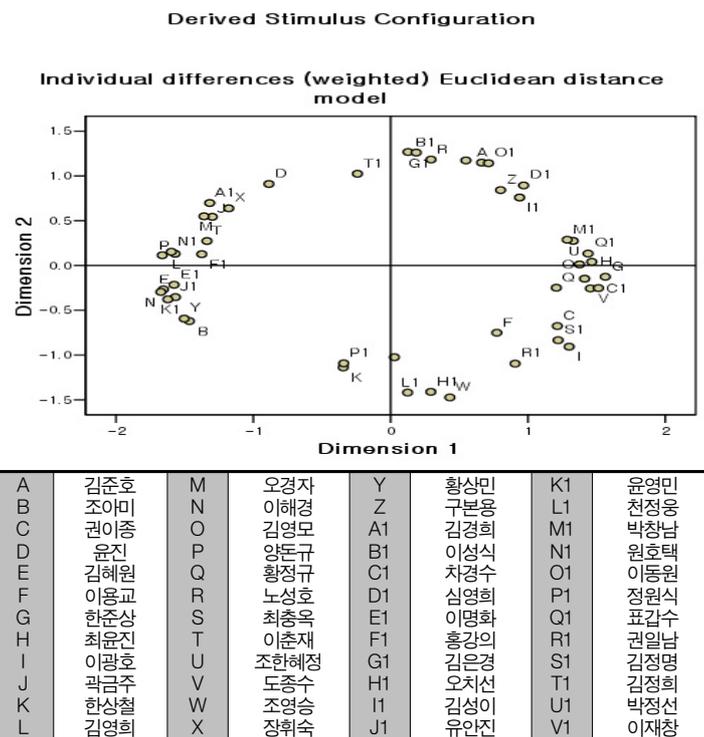
<표 4> 학진 연구분야 분류표에 따른 핵심저자 전공 분포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인원
인문학	역사학	인류학	문화인류학	1
사회과학	정치학	정치외교학	국제정치경제	1
		사회학	사회심리/일탈과 범죄사회학	
	가족/성의 사회학			2
	정보/과학기술사회학			1
	소 계			9
	사회복지학	사회복지학일반	사회복지정책	3
		청소년복지		2
		아동복지		1
	소 계			6
	교육학	교육학 일반	교육철학/사상	2
		교육심리학		7
		교육사회학		3
		교육평가		1
		교육행정		1
		교육상담		4
		분야교육	평생교육(청소년사회교육)	1
		교과교육학	윤리교육	1
소 계			20	
자연과학	생활과학	가족학	가족상담 및 교육	1
의약학	정신과학	심리학	소아정신분석	1
농수해양	농학	농학일반	농업교육	1
예술체육	체육	체육일반	스포츠철학	1
복합학	심리과학	발달/노년심리		5
		사회/문화심리		1
		임상심리		1
	소 계			7
계				48

2. 저자동시인용기법 분석결과

1) 다차원척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48명 핵심저자들의 상관관계행렬을 입력데이터로 삼아 SPSS MDS 분석프로그램(ALSCAL)을 사용하여 저자들의 위치를 2차원 상에 지도화하였다. 다차원 척도법(MDS)은 여러 차원에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지만 저자동시인용기법에서는 대부분 이차원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삼차원적 해결방법이 세밀성은 있으나 복잡하며, 복잡성에 비해 설득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이차원으로 설계했을 경우 유사도에서 85% 이상의 변량이 표현되며 풍부한 해석자료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조명희, 1992: 343). 이 같은 절차를 거쳐 2차원 상에서 저자들의 상관관계를 지도상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 다차원척도에 의한 핵심저자의 지도(저자번호 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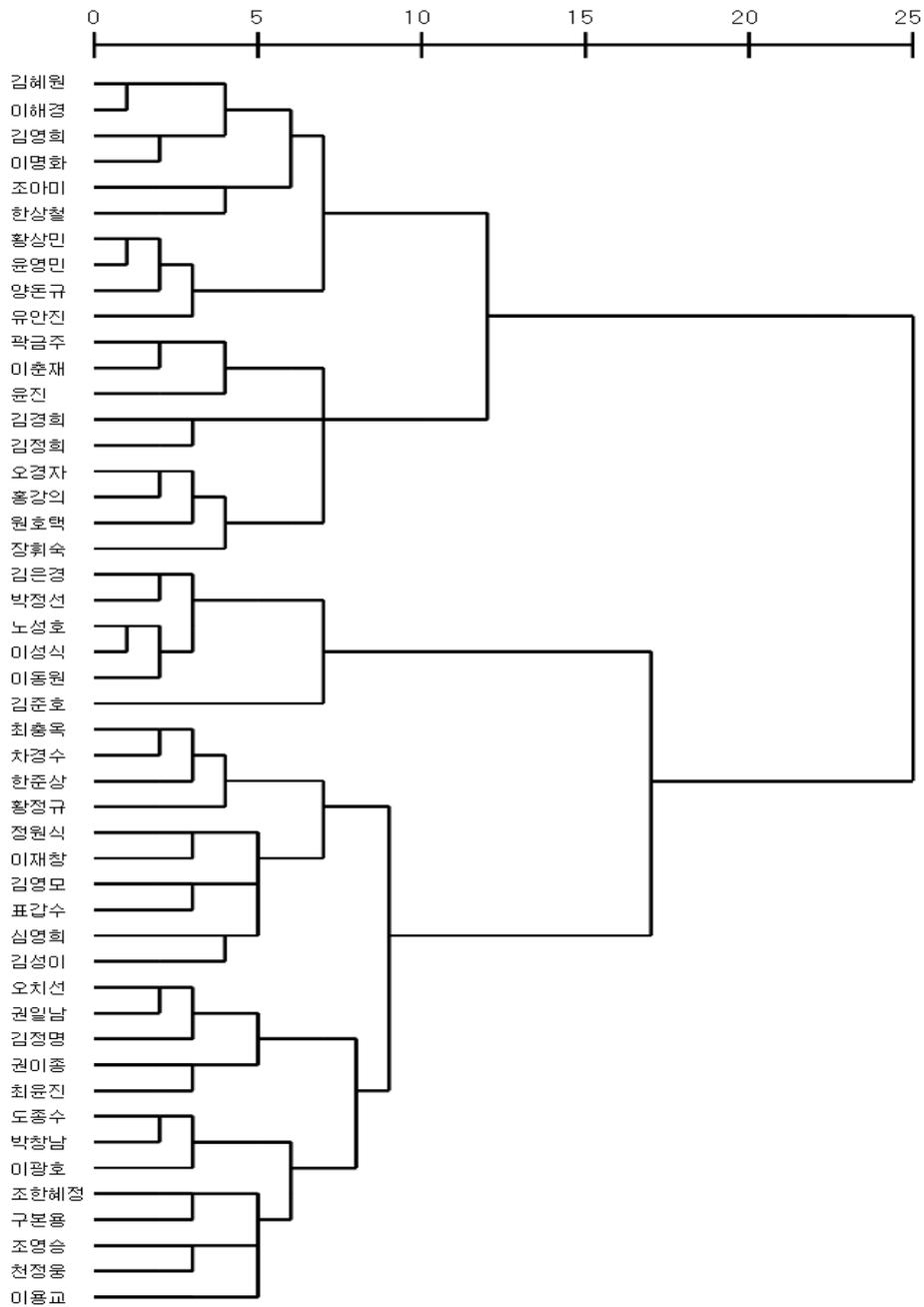
지도에서 횡축(X축)을 기준으로 좌측은 심리학적 배경을 갖는 저자집단으로 묶을 수 있는 반면, 우측은 사회학·교육학·사회복지학을 학문배경으로 삼는 집단들로 군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횡축을 핵심저자들의 학문적 배경에 따른 기준으로 결정하였다.³⁾ 반면 종축(Y축)은 연구대상에 대한 연구관심 혹은 연구주제에 따라 상·하측으로 집단군집의 유형이 나누어지고 있다. 즉, 지도상 위쪽은 ‘개별 청소년’에 대한 연구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자들이며, 아래쪽은 청소년 개인보다는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혹은 ‘청소년과 환경과의 교섭과 상호작용’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구체적으로 X축 좌측은 심리학적 배경을 갖는 저자들인데, 이 중 광금주, 김경희, 장휘숙, 이춘재, 오경자 등 상측에 위치하는 저자들은 학문적 세부전공분야가 발달심리 혹은 임상심리여서 청소년 개인에 대해 연구관심이 모아진 저자들이다. 반면 김혜원, 이해경, 조아미, 황상민 등 하측에 위치한 심리학적 배경을 갖는 저자들은 세부전공이 교육심리 혹은 사회/문화심리이고 주된 연구주제는 개별 청소년보다는 청소년-외부 환경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등에 연구관심이 모아져 있다. 반면 우측에 포진한 저자들은 학문적 배경이 사회학·사회복지학·교육학 등이다. 이 중, 상측에 위치하는 대다수의 사회학적 배경을 갖는 저자들은 사회심리/일탈과 범죄 사회학 혹은 가족/성의 사회학 등 청소년문제행동 및 이에 따른 사회심리적 주제에 연구관심이 있는 저자들이다. 즉, 학문배경이 다르다 해도 좌측 위쪽에 위치한 발달심리 혹은 임상심리 전공자들처럼 청소년 개인에게 연구관심이 있는 저자들이다. 반면, 우측의 아래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저자들은 사회복지정책 혹은 청소년정책 등에 연구초점이 모아진 핵심저자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MDS 분석을 통해 2차원 내에서 핵심저자 지도를 산출한 결과, 1차원에서는 이들의 학문적 배경을 기준으로 차원의 이름을 결정하였고, 2차원에서는 이들의 주된 연구관심과 연구주제를 기준으로 차원의 이름을 결정하여 청소년학의 학문도를 파악하였다.

3) MDS 분석에서는 일단 차원의 수가 결정되어 좌표 상에서 분석대상의 위치가 결정되면 연구자가 분석대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각 차원의 이름을 결정할 수 있다(임형택, 1991: 94; 박광배, 2000). 특히 저자동시인용기법에서는 다차원척도를 통한 학문의 지적구조를 지도화하면서 각 차원의 명을 연구자가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조명희, 1993; 이명옥, 1996; 이수범·권영순,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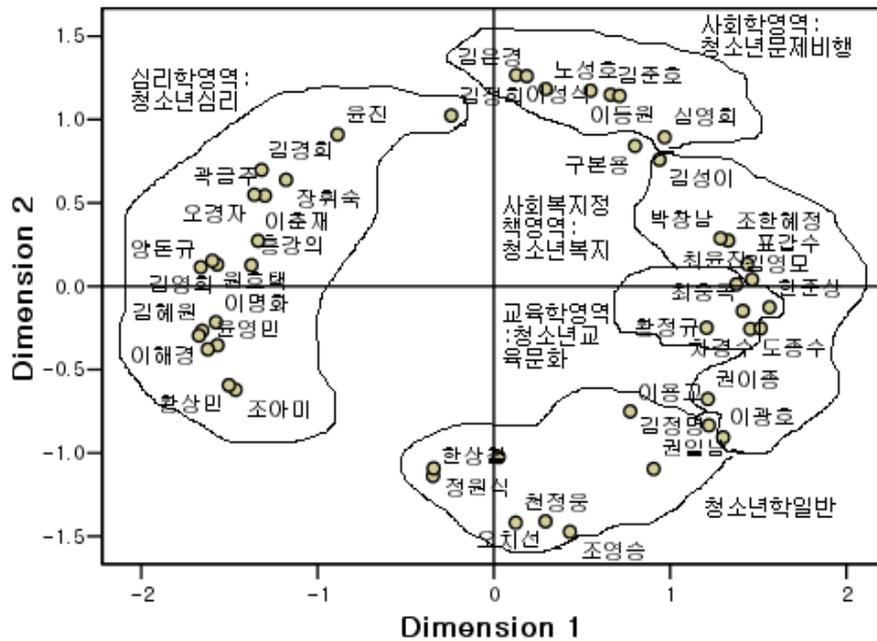
2) 군집분석 결과

SPSS를 활용하여 핵심저자들을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한 결과를 덴드로그램(dendrogram)으로 나타냈다(참고: 그림 2). 덴드로그램이 표현하듯,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제 1군집: [김혜원, 이해경, 김영희, 이명화, 조아미, 한상철, 황상민, 윤영민, 양돈규, 유안진, 박금주, 이춘재, 윤진, 김경희, 김정희, 오경자, 홍강의, 원호택, 장휘숙] ② 제 2군집: [김은경, 박정신, 노성호, 이성식, 이동원, 김준희] ③ 제 3군집: [최충욱, 차경수, 한준상, 황정기] ④ 제 4군집: [도종수, 박창남, 이광호, 조영승, 천정웅, 이용교] ⑤ 제 5군집: [오치신, 권일남, 김정명, 권이중, 최윤진]. 이렇게 형성된 군집의 저자들은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갖는 저자 쌍들이다. 이 저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집이 나타내는 하위주제를 임의적으로 명명하면, 크게 청소년심리에 연구관심을 갖는 심리학적 접근영역(제1군집), 청소년문제비행에 대해 학적 관심을 갖는 사회학적 접근영역(제2군집), 청소년교육·문화에 대해 교육학적 연구관심을 갖는 접근영역(제3군집), 청소년복지 및 정책에 대해 연구관심을 갖는 사회복지/정책 접근영역(제4영역),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학 일반에 대한 이해영역(제5군집) 등의 하위 주제영역으로 묶을 수 있다. 군집 분석으로 형성된 소집단은 단순한 저자집단이라기보다는 특정 하위주제를 대표하거나 또는 그 하위주제의 특징, 이론, 접근방법 등을 나타낸다.

5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서 MDS 분석에 따른 저자 지도에서의 유사도 거리와 핵심저자들의 '학문적 배경', '연구관심과 초점' 등에 따라 저자들을 다시 군집하였다(참고: 그림 3). 가장 많은 다수의 핵심저자들이 군집해 있는 심리학적 영역은 청소년개인의 심리적 상황·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적극적인 심리적 조응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연구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지도상 우측 위에는 사회학적 배경을 갖고 청소년의 일탈과 비행 등에 연구관심을 갖는 일군의 저자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곳 저자들의 세부전공은 대부분 사회심리/일탈과 범죄사회학 전공자이거나 가족/성의 사회학이다. 특히 이들은 사회학이란 공통분모 외에, 일부 저자들은 동문출신관계(사제 혹은 동문관계)를 상호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2] 저자군집에 대한 덴드로그램



[그림 3] 군집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청소년학의 지도

반면에 지도의 중간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두개의 군집은 교육학과 사회복지학이란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저자군집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학문적 배경에 따라 다소 이분되어 있지만 다른 군집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고 연구관심과 초점도 개별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에도 모아져 있다. 이 군집의 또 다른 특징은 부분적으로 사회학적 학문배경을 갖고 있는 저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사회복지학과에 소속되어 있고 사회복지정책이 주된 세부전공이지만 원래의 학문적 배경은 사회학인 저자들(도종수, 박창남, 김영모)이 속해 있고, 교육학을 학문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세부전공은 교육사회학인 저자들(한준상, 최충욱, 차경수)도 이곳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학문공동체 및 학파형성이란 관계는 아니지만, 잠정적인 학문적 연대의식은 있는 집단으로 보이며, 연구관심과 주제에 따라 그리고 향후 연구수행을 통해 학적 교류가 가능한 집단으로 파악할 수 있다. 지도상으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저자들은 다른 집단과 비교해 뚜렷한 학문적 배경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개별 청소년보다는 청소년활동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특징지어진다. 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이들의 평소 연구관심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청소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에 연구관심을 가진 저자집단들로 해석할 수 있다.

3) 요인분석 결과

저자동시인용기법에서 요인분석은 군집분석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형성된 저자군집이 해당 학문분야의 하위주제 영역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된다. 먼저, 분석자료를 대표할 수 있는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행했는데, 각 요인의 최초 통계치는 <표 5>와 같다. 초기 고유값을 살펴보면, 15개까지의 아이겐 값이 1보다 크고 총 분산의 72.055% 정도를 설명해 주므로, 15개의 요인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요인 추출기준을 정하고 저자들 간의 최상의 선형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비회전 요인행렬을 구하였다(참고: 표 6). 요인 적재량이 어느 정도 되어야 유의한 변수로 채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0.3을 유의성이 있는 최저기준으로 고려하고 있고, 0.4 이상이면 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0.5 이상이면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비회전 요인행렬에서는 변수들의 요인적재량이 특정요인에 높게 나타나지 않고 분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요인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VARIMAX 회전방법을 적용하는데, 그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이렇게 15개 요인으로 나누어진 결과를 각 요인에 요인 명을 부여하여 해석 가능한 요인으로 최종 일곱 개 요인으로 제한하였다. 일곱 개 요인으로 제한한 이유는 8번째 요인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저자(정원식, 이재창)들이 적어 공통속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크고, 아이겐 값도 1.931 이하로 나타나 48명 저자간의 관계를 해명하는 정도가 작아서이다. 또한 스크리 도표를 통해 얻은 결과 역시 8번째 요인부터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참고: 그림 4).

<표 5> 최초 요인추출 통계치

	초기 고유값			추출제곱할 적재값			회전제곱할 적재값		
	아이겐치	% 분산	% 누적	아이겐치	% 분산	% 누적	아이겐치	%분산	%누적
1	7.006747	14.59739	14.59739	7.006747	14.59739	14.59739	4.765473	9.928069	9.928069
2	5.024838	10.46841	25.0658	5.024838	10.46841	25.0658	4.703708	9.799391	19.72746
3	3.201838	6.670496	31.7363	3.201838	6.670496	31.7363	2.727424	5.682133	25.40959
4	2.551031	5.314648	37.05095	2.551031	5.314648	37.05095	2.652407	5.525847	30.93544
5	2.392428	4.984224	42.03517	2.392428	4.984224	42.03517	2.478258	5.163037	36.09848
6	2.24898	4.685374	46.72055	2.24898	4.685374	46.72055	2.414655	5.030532	41.12901
7	1.801837	3.753827	50.47437	1.801837	3.753827	50.47437	2.077783	4.328714	45.45772
8	1.716202	3.57542	54.04979	1.716202	3.57542	54.04979	1.930759	4.022414	49.48014
9	1.547776	3.224532	57.27433	1.547776	3.224532	57.27433	1.803116	3.756492	53.23663
10	1.484728	3.093183	60.36751	1.484728	3.093183	60.36751	1.673032	3.485484	56.72211
11	1.313704	2.736883	63.10439	1.313704	2.736883	63.10439	1.60211	3.33773	60.05984
12	1.162721	2.422336	65.52673	1.162721	2.422336	65.52673	1.588865	3.310136	63.36998
13	1.095574	2.282446	67.80917	1.095574	2.282446	67.80917	1.447565	3.01576	66.38574
14	1.023531	2.132356	69.94153	1.023531	2.132356	69.94153	1.361813	2.837111	69.22285
15	1.014722	2.114005	72.05553	1.014722	2.114005	72.05553	1.359689	2.832685	72.05553
16	0.962911	2.006065	74.0616						
17	0.944464	1.967634	76.02923						
18	0.881432	1.836318	77.86555						
19	0.836653	1.743026	79.60858						
20	0.740766	1.543262	81.15184						
21	0.735452	1.532192	82.68403						
22	0.642797	1.339159	84.02319						
23	0.587485	1.223928	85.24712						
24	0.582896	1.214366	86.46149						
25	0.544329	1.134018	87.5955						
26	0.504506	1.051054	88.64656						
27	0.473709	0.986893	89.63345						
28	0.457246	0.952595	90.58605						
29	0.422705	0.880635	91.46668						
30	0.41535	0.865313	92.33199						
31	0.38476	0.801583	93.13358						
32	0.369412	0.769608	93.90318						
33	0.3397	0.707708	94.61089						
34	0.316363	0.65909	95.26998						
35	0.288086	0.600178	95.87016						
36	0.271684	0.566007	96.43617						
37	0.248427	0.517557	96.95372						
38	0.21863	0.455479	97.4092						
39	0.206501	0.43021	97.83941						
40	0.179626	0.374221	98.21363						
41	0.171529	0.357351	98.57098						
42	0.155107	0.323139	98.89412						
43	0.152529	0.317768	99.21189						
44	0.133962	0.279087	99.49098						
45	0.118283	0.246423	99.7374						
46	0.089659	0.186789	99.92419						
47	0.036389	0.07581	100						
48	0.000000	0.00000	100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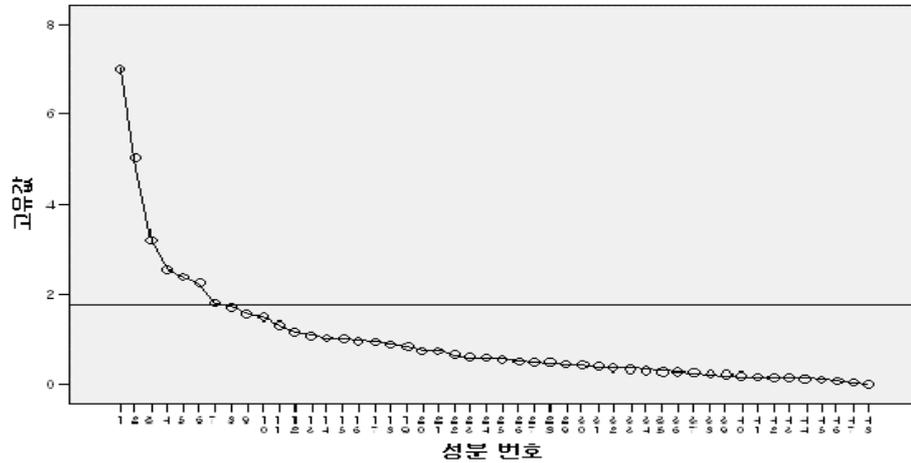
<표 6> 비회전 요인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해경	0.768174	0.035972	0.367666	-0.13609	0.026818	0.171114	0.160591	-0.10683	-0.14579	-0.03254	-0.05883	-0.04801	-0.09674	0.094714	0.042315
김혜원	0.747981	0.062249	0.440361	-0.11572	0.061256	0.191385	0.125349	-0.14576	-0.13354	-0.02495	-0.04388	-0.01304	-0.05461	0.05731	0.003541
윤영민	0.712899	-0.00281	0.388979	-0.25284	-0.19259	0.034485	0.218598	0.025001	-0.04456	-0.10031	-0.01529	0.075077	-0.10781	-0.03829	0.043044
양돈규	0.674558	0.185841	0.30625	-0.14585	-0.08799	-0.10815	0.238633	0.083321	0.116868	0.014329	-0.00479	0.064378	-0.07447	0.031803	0.061965
이병화	0.582878	0.050679	0.220678	-0.05012	0.138319	0.493878	-0.16152	-0.31551	-0.15433	0.080932	0.05336	-0.08737	0.016005	0.122582	0.038292
한준상	-0.52692	-0.02603	0.259333	0.034969	0.130441	0.259908	0.420244	0.000427	0.121691	0.258056	-0.07621	0.048362	0.066214	0.018415	-0.08179
황상민	0.518071	-0.06023	0.339173	-0.2681	-0.24442	-0.16632	0.221471	0.170844	-0.00046	-0.15251	0.013467	0.076895	-0.01718	-0.03021	-0.01603
조아미	0.503134	-0.00582	0.420136	0.051828	0.291096	0.376364	-0.20039	-0.06423	0.027063	0.034875	0.057726	0.085755	0.209039	-0.2109	-0.08392
차경수	-0.48266	-0.1132	0.185323	0.022826	0.039713	0.085488	0.461586	-0.16302	0.120175	0.268944	-0.16831	-0.18028	0.196003	0.064505	0.082629
최윤진	-0.48198	0.065966	0.373526	0.256835	0.003045	-0.1267	0.170066	-0.17477	-0.0936	0.090913	0.203809	-0.18753	-0.3065	0.074766	-0.0021
원호택	0.479297	0.134243	-0.11123	0.301979	0.357777	-0.04764	0.092072	-0.00062	0.160048	0.015466	-0.0263	-0.17203	-0.15095	0.089835	-0.06023
유안진	0.444819	-0.00741	0.083646	-0.08216	-0.095	-0.28496	0.175149	0.269361	0.24998	-0.03318	0.060149	0.234554	0.084858	0.208125	-0.37807
표갑수	-0.41373	0.032562	0.016002	-0.03205	0.272776	0.301904	0.304112	0.041555	-0.01677	-0.08242	-0.04827	0.240305	-0.26691	0.028342	0.001098
이광호	-0.40997	-0.3631	0.332489	-0.15691	0.341256	0.052808	-0.18666	0.204375	0.229547	0.081761	-0.08409	-0.07722	-0.10074	0.125158	0.160527
김준호	-0.32919	0.824764	0.280817	0.02516	-0.03206	0.056898	0.030076	-0.06176	0.037256	0.014311	-0.04188	0.079223	0.050989	0.097935	-0.03794
노성호	-0.20614	0.777421	0.255396	-0.03751	-0.14938	-0.00166	-0.06353	-0.08806	0.152068	-0.0577	-0.02147	0.045544	0.004182	-0.06247	0.051092
이정식	-0.15588	0.771882	0.123064	-0.11426	-0.17104	-0.08968	-0.11107	-0.07702	0.181046	0.045855	0.122921	0.066094	-0.03829	0.016873	0.065041
김은경	-0.17333	0.760008	0.108029	-0.01156	-0.04207	-0.10364	-0.17575	0.010547	0.075509	-0.0417	-0.05384	-0.03634	0.038177	0.187808	-0.01322
이동원	-0.3329	0.69443	0.058693	-0.13073	-0.07135	-0.08195	-0.00777	-0.07677	0.153141	0.189301	0.072757	-0.02249	-0.08558	-0.07289	-0.02253
박정선	-0.25917	0.648988	0.077429	-0.12355	-0.02794	0.030062	-0.19199	0.075792	-0.01827	-0.10097	-0.16009	0.037611	0.066741	0.102493	0.040269
윤진	0.17483	0.416607	0.103295	0.411987	0.184028	0.059022	-0.02128	0.263028	0.120007	0.137209	0.376187	-0.01535	0.066794	0.131487	0.030167
조영송	-0.10651	-0.39557	0.211597	-0.25058	0.042898	-0.18568	-0.04009	0.123627	0.357019	0.161462	0.054627	-0.10039	0.182229	0.309803	-0.13006
심영숙	-0.28657	0.37959	0.020407	-0.05748	-0.1397	0.239606	0.010493	-0.20492	0.134851	-0.17282	0.068758	-0.11984	-0.25023	-0.22918	-0.07158
권일남	-0.26881	-0.33348	0.552256	0.269715	-0.14292	-0.11082	-0.31017	-0.12552	0.015856	-0.02478	-0.02152	0.041466	0.058578	0.128566	0.026641
권이종	-0.34778	-0.17274	0.487392	0.469038	-0.23182	-0.05257	-0.00537	0.029031	-0.19735	-0.13541	-0.03627	0.00948	-0.15848	0.18335	-0.03924
한상철	0.073214	-0.13003	0.479061	0.362799	0.005577	0.067828	-0.20159	-0.03486	0.259783	0.0898	0.015132	0.206915	0.243267	-0.38452	-0.09755
오진선	-0.10421	-0.39796	0.446248	0.137739	-0.07388	-0.11689	-0.40993	-0.01138	0.153215	0.05229	-0.26763	0.06747	0.011398	-0.1374	-0.01573
장희숙	0.243205	0.195557	-0.12131	0.367877	0.276267	-0.26702	0.066866	-0.00575	-0.06837	0.126558	0.011533	0.084016	-0.01989	-0.36235	0.166094
홍강의	0.352544	0.110212	-0.04807	0.297546	0.573446	-0.23277	0.115328	-0.27178	0.057247	-0.19532	-0.19424	-0.10896	-0.0908	0.029931	-0.01313
박창남	-0.37513	0.09401	0.150051	-0.34722	0.516745	0.167841	-0.13619	0.408813	-0.15251	0.024792	-0.00751	0.064773	0.015962	-0.1078	-0.02029
오경자	0.359447	0.241393	-0.14227	0.368017	0.480099	-0.36994	0.099861	-0.11986	0.159175	-0.09106	-0.07968	0.061579	-0.00538	0.096371	-0.18247
도홍수	-0.42705	-0.10908	0.115502	-0.24028	0.460527	0.236687	-0.04238	0.303415	0.053907	-0.10033	-0.09412	0.124667	-0.16107	0.099813	0.267502
이윤교	-0.14342	-0.08988	0.126692	0.182632	0.396307	-0.1621	-0.08086	-0.17576	-0.11807	-0.32484	0.395615	0.113429	0.254502	0.164286	0.273959
김영희	0.47269	0.119899	0.036056	0.099887	-0.07071	0.519789	-0.18227	-0.07461	-0.06994	0.209587	0.10745	-0.09752	0.019553	0.191056	0.051385
이재창	-0.03255	-0.13133	-0.19636	0.412458	-0.21766	0.457568	0.015517	0.050028	0.08968	-0.04396	0.193196	0.103004	-0.01361	-0.06227	-0.19375
정원식	0.027809	-0.14927	-0.27849	0.237583	-0.09994	0.448385	-0.03861	0.31062	0.307515	-0.16129	0.241538	-0.19815	-0.07726	0.129423	-0.20812
최종욱	-0.41014	-0.02631	0.238725	0.302467	-0.05791	0.133136	0.417489	0.007776	0.059073	0.191128	-0.16288	-0.20869	0.182541	-0.04522	0.069031
이준재	0.291685	0.111881	-0.06491	0.348336	-0.22824	0.053473	0.090216	0.533834	-0.1836	0.006596	-0.11759	-0.15363	0.026735	-0.06396	0.3349
곽금주	0.330878	0.327207	0.179924	0.352085	-0.13129	-0.15142	0.047846	0.528372	-0.03601	0.029152	0.091442	-0.05391	0.018693	-0.02941	0.21689
구분용	-0.21875	0.299027	0.226127	-0.03926	0.175376	-0.02671	-0.05357	0.254797	-0.56402	-0.1564	-0.0761	0.028657	0.179726	0.070189	-0.3658
김정희	0.002909	0.061216	-0.33517	0.011566	-0.16469	-0.03218	-0.1561	-0.08536	-0.21186	0.470816	0.030862	0.32995	-0.06168	0.122304	0.084517
김영모	-0.30919	-0.00292	-0.10125	0.02144	-0.03234	0.274311	0.199284	-0.15235	0.155328	-0.46174	0.238394	0.326778	0.095	0.038858	0.176224
김경희	0.269427	0.167136	-0.29164	0.140353	0.092204	0.054075	-0.18517	-0.12228	-0.13325	0.374594	-0.0921	0.050963	0.090352	0.274823	0.047855
천정음	-0.0205	-0.29699	0.154423	-0.27461	-0.11674	-0.31685	0.137654	-0.14996	0.00176	0.086276	0.485625	-0.04857	0.171739	0.031395	0.233505
조한혜정	-0.33804	0.088297	0.145669	-0.19248	0.223879	-0.09715	0.105754	0.041177	-0.39455	0.158991	0.431942	-0.28031	0.063967	-0.21057	-0.27083
황정규	-0.24763	-0.07837	-0.0114	0.268211	-0.08473	0.05923	0.348845	-0.01468	-0.25366	0.124083	-0.06704	0.511902	0.082017	0.092547	-0.06124
김정이	-0.21162	0.131893	-0.13947	0.090392	-0.23237	0.093841	0.049187	-0.10418	-0.14834	-0.42053	-0.2651	-0.27281	0.432214	0.091153	0.032279
김정명	-0.35363	-0.32538	0.291793	0.283032	-0.19665	-0.177	-0.18244	-0.05956	-0.21476	-0.09619	0.059162	-0.01375	-0.38375	0.097934	-0.06752

Extraction Method: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표 7> 회전 요인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김준호	.900	.011	.037	.050	.062	.188	.019	-.015	.008	.027	-.033	.120	.147	.007	-.091
노성호	.865	.037	-.024	-.004	-.038	.048	.041	-.051	.074	-.097	-.090	-.021	.013	-.003	-.030
이성식	.850	-.017	-.057	-.064	-.091	-.049	.032	-.049	-.033	.007	-.005	-.031	-.041	.053	.117
김은경	.801	-.060	.096	.024	.019	-.061	.076	-.045	-.066	.097	.066	.048	-.065	-.010	-.141
이동원	.765	-.166	-.041	-.087	-.037	.131	-.044	-.073	-.071	-.005	-.062	.091	-.051	-.067	.192
박정선	.695	-.083	-.053	-.038	.177	-.081	.049	-.080	-.039	.057	-.032	.049	.021	-.062	-.234
심영희	.458	-.051	-.086	.019	-.039	.056	-.210	.219	-.066	-.275	-.350	-.008	-.055	-.105	.048
김혜원	-.057	.909	.151	-.031	-.068	-.065	.027	-.060	.075	.045	.006	.015	-.031	-.020	.003
이해경	-.104	.895	.138	-.043	-.075	-.078	.069	-.065	-.028	.044	.012	-.023	-.047	-.044	.000
윤영민	-.081	.818	-.059	-.072	-.150	-.146	.137	-.133	-.006	-.192	.131	-.094	.025	-.073	.092
이명화	-.050	.727	.074	-.073	.005	-.080	-.158	.183	.126	.369	-.221	.023	-.150	.072	-.066
양돈규	.086	.666	.130	-.147	-.155	-.080	.234	-.139	-.021	-.113	.244	-.134	-.014	-.050	.172
조아미	-.060	.585	.139	-.144	.123	-.074	-.026	.151	.580	.097	-.073	.138	-.063	.074	.003
황상민	-.089	.562	-.122	-.042	-.156	-.152	.187	-.189	-.021	-.310	.305	-.040	.029	-.044	.057
김영희	.019	.495	-.048	-.082	-.061	-.055	.077	.378	.058	.470	-.135	-.043	.132	-.013	-.021
오경자	.057	.006	.858	-.099	-.130	-.114	.032	-.051	.026	.046	.164	-.010	.072	.050	.026
홍강의	-.073	.148	.848	-.031	-.003	-.032	-.061	-.135	-.012	-.022	-.100	-.054	-.056	.065	-.078
원호택	-.066	.212	.645	-.108	-.050	-.039	.147	.163	-.061	.098	.027	-.058	-.145	-.060	.096
장휘숙	-.011	-.069	.469	-.158	-.157	-.054	.330	-.189	.178	.034	-.256	.043	.097	.048	.229
권이종	.014	-.042	-.068	.806	.005	.186	.136	.066	.102	-.097	.004	.037	.182	.034	-.124
김정명	-.128	-.174	-.111	.796	.001	-.052	-.053	-.012	-.005	-.093	-.073	.047	.039	-.014	.087
권일남	-.053	-.044	-.152	.672	.045	.096	-.074	-.082	.410	.017	.114	-.075	-.065	.164	-.088
최윤진	.220	-.123	.050	.584	.000	.386	-.051	-.009	-.122	-.118	-.140	.187	-.023	.130	.225
도중수	-.002	-.135	-.080	.011	.843	.087	-.040	-.023	-.065	-.093	-.056	-.034	.039	.089	.026
박창남	.120	-.128	-.103	-.151	.743	-.008	-.006	-.088	.076	-.060	-.018	.424	.008	-.021	.030
이광호	-.132	-.158	-.110	.249	.665	.208	-.112	-.076	.156	-.058	.148	-.065	-.260	.056	.099
표준수	.079	-.086	.032	.035	.454	.244	-.173	.141	-.178	-.156	-.170	.016	.381	-.024	.101
차경수	.002	-.147	-.087	.049	.073	.807	-.134	-.111	-.030	-.034	.016	-.018	.024	.031	-.062
최충욱	.040	-.135	-.034	.152	-.003	.746	.145	.040	.087	-.085	-.069	.024	.070	-.035	-.118
한준상	.105	-.110	-.100	.058	.265	.703	-.144	.084	.061	-.071	.037	.099	.228	-.041	.080
이춘재	-.086	.100	-.018	-.027	-.056	-.022	.817	.086	-.066	.050	-.112	-.082	.006	-.135	-.136
박금주	.190	.172	.123	.043	-.080	-.079	.799	.051	.058	-.018	.107	.024	-.013	.008	.066
윤진	.323	.080	.303	-.020	.009	.027	.428	.355	.105	.193	.110	.146	-.025	.241	.190
정원식	-.161	-.110	-.028	-.052	.046	-.042	.100	.804	-.078	-.063	.091	-.080	-.135	-.066	-.041
이재창	-.139	-.099	-.085	.040	-.158	.032	.038	.655	.132	.034	-.134	-.061	.224	-.042	.002
한상철	-.004	.089	.041	.140	-.073	.102	.062	.083	.827	-.101	.024	-.033	.047	.043	.102
오치선	-.168	-.051	-.113	.433	.121	-.025	-.065	-.182	.575	-.043	.096	-.167	-.148	-.144	-.020
김경희	.020	.034	.184	-.147	-.106	-.080	.042	-.001	-.059	.660	-.013	-.050	.009	-.052	-.013
김정희	.013	-.172	-.173	-.067	-.147	-.134	.004	-.106	-.098	.564	-.057	-.066	.247	-.071	.249
유안진	-.036	.241	.148	-.122	-.186	-.184	.090	.045	.011	-.130	.697	-.010	.148	-.094	.108
조영승	-.195	-.068	-.146	.079	.158	.184	-.182	-.056	.080	-.008	.611	-.048	-.289	.086	.063
조한혜정	.063	-.123	-.112	.020	.021	.170	-.088	-.074	-.089	-.108	-.090	.807	-.118	.147	.179
구본용	.240	.009	.011	.148	.202	-.096	.072	-.104	-.007	.007	.070	.679	.251	-.085	-.356
황정규	-.077	-.121	-.060	.130	-.039	.247	.028	-.015	.002	.126	.020	.025	.718	.035	.005
이용교	-.051	-.094	.218	.160	.156	-.073	-.036	-.065	.079	-.014	-.045	.101	.051	.776	-.111
천정웅	-.194	.038	-.296	.020	-.194	.098	-.063	-.260	-.083	-.108	.181	.057	-.175	.526	.257
김영모	.098	-.120	-.131	-.070	.109	.036	-.189	.281	-.068	-.288	-.137	-.240	.362	.449	-.133
김성이	.111	-.153	-.084	-.025	-.179	.118	.021	.030	-.094	-.100	-.120	-.017	-.019	.063	-.760



[그림 4] 스크리 도표

<표 8>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요인 명	청소년문제 비행·일탈	인터넷중독	임상/발달· 정신병리	청소년학일반 (청소년활동)	사회복지/ 청소년정책	청소년 교육·문화	발달심리
아이겐치	4.765	4.704	2.727	2.652	2.478	2.415	2.078
전체변량	9.928	9.799	5.682	5.526	5.163	5.031	4.9329
누적변량	9.928	19.727	25.410	30.935	36.098	41.129	45.458
저자명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김은경, 이동원, 박정선, 심영희 (7명)	김혜원, 이해경, 윤영민, 이명화, 양돈규, 조아미, 황상민, 김영희 (8명)	오경자, 홍강의, 원호택, 장휘숙 (4명)	권이종, 김정명, 권일남, 최윤진 (4명)	도종수, 박창남, 이광호, 표갑수 (4명)	차경수, 최충옥, 한준상 (3명)	이춘재, 박금주, 윤진 (3명)

지금까지의 요인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이때 7개 요인의 공통변량의 누적률은 45.458%로 7개의 요인이 48명의 저자들의 관계를 약 45.5%정도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각 요인에는 요인적재량이 0.4이상인 저자들을 큰 순서대로 선택하여 배열하여 총 33명의 핵심저자들이 위치하였다. <표 8>의 결과를 해석하면 국내 청소년연구는 청소년일탈·비행이나 인터넷중독 등 청소년문제를 탐구하는 학문분야

가 형성되어 있고, 임상·발달·정신병리 및 발달심리 등의 학문배경을 통한 심리학적 접근도 주요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학 일반에 대한 접근, 사회복지 및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관심, 교육학적 배경을 갖고 청소년교육·문화에 대한 연구관심도 독자적인 학문분야이자 연구영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학의 지적 구조를 해명하기 위해 저자동시인용기법을 사용하여 청소년학의 핵심저자들을 추출하고 이들의 학문적 배경과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다차원척도 및 군집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핵심저자들의 상관관계와 군집형성, 청소년학의 하위 주제영역에 대해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48명의 핵심저자들이 갖는 학문적 배경을 분석한 결과, 사회과학적 학문배경을 갖고 있는 저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의 세부전공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교육학 전공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이 외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과학(심리학) 등이 다수였다. 저자동시인용분석을 통해 핵심저자들의 상관관계에 따른 군집형성을 살펴본 결과, 이들 전공영역을 중심으로 핵심저자들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 군집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최충욱, 1993; 최윤진, 1993; 차경수, 1993; 한준상, 1999b)이 청소년학을 일러 '사회과학적 영역(성격)에 속하는 학문', '사회학·심리학·교육학에 기반한 응용사회과학'이란 규범적 인식과 논의를 극복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한 학술적 근거이자 결과이다. 특히 이들 핵심저자들이 그간 주요 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참고되어진 저자들이란 점을 감안하면, 그래서 이들이 청소년관련학과·전공의 교수인력은 물론이고 청소년관련학계의 중견 연구인력, 대학원의 예비인력들에게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왔고 또 향후에도 미칠 연구자들이란 점까지 고려한다면, 청소년학의 사회과학적 성격으로의 강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이 같은 연구결과는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영역분류표 상 청소년학이 자

연과학 내 아동학의 범주 속에 편재되어 있는 사실과 상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된다.

둘째, 다차원척도법과 군집분석에 따라 2차원에 핵심저자들을 지도화하고 군집한 결과 X축과 Y축으로 의미있는 저자군집이 이루어졌다. 즉, 핵심저자 지도에서 횡축으로는 학문적 배경에 따라 심리학과 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저자군집들로 나누어졌고, 종축으로는 연구관심 및 주제에 따라 개별 청소년과 청소년-외부환경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등으로 저자군집들이 나누어졌다. 또한 저자들의 연관성에 따라 비슷한 특성을 지닌 저자들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집단의 뚜렷한 저자군집이 형성되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청소년학의 학문적 연구대상 및 연구영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를 함축한다. 즉, 청소년학의 주된 연구대상은 개별 청소년은 물론이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그리고 청소년과 사회 환경과의 밀접한 상호 교섭관계 등이 포괄된다. 이는 청소년학의 학문적 연구대상은 청소년(기)은 물론이고 청소년생활세계를 모두 포괄한다는 의미이다. 즉, 학문의 과학성을 충족할 기본요건 중 하나인 연구대상을 청소년이란 인구집단을 물론이고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 그리고 청소년생활세계를 모두 함의함을 실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군집들이 각기 다른 학문적 배경과 특성, 연구관심에 따라 각기 다른 하위주제영역(청소년심리/청소년문제비행/청소년복지·정책/청소년교육·문화/청소년활동 등)으로 구분·재편된다는 것은 청소년학의 주된 하위주제들이 바로 이러한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군집분석으로 형성된 5개 저자군집을 재확인하고, 형성된 저자군집이 청소년학의 하위주제 영역을 반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15개 요인을 중심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7개의 하위 주제영역이 형성되었다. 즉, ① 청소년문제·비행·일탈 ② 인터넷중독 ③ 임상·발달·정신병리 ④ 청소년일반(청소년활동) ⑤ 사회복지/정책 ⑥ 청소년교육·문화 ⑦ 발달심리 등이다. 요인분석의 결과는 다시 청소년일탈·비행,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문제를 탐구하는 하위 학문분야, 임상·발달·정신병리와 발달심리 등 심리학적인 현상을 탐구하는 하위 학문분야, 청소년교육·문화 하위 학문분야, 사회복지 및 청소년정책 등의 하위 학문분야,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학 일반 학문분야 등으로 다시 결합될 수 있어서 이들이 현재 청소년 연구의 주요 하위주제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넷째, 핵심저자들의 소속 학과별·세부전공별 분포현황 분석과 저자동시인용분석을 통해, 저자간 학문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대학별로는 고려대가 학과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다. 고려대는 사회학을 중심으로 뚜렷한 군집형성과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주제 및 관심도 같은 영역에서 밀접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질적인 차원에서 학과형성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 다수가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의 사제관계와 동문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연구에서의 학과가능성은 확실히 높다. 명지대는 청소년관련학과(청소년지도학과)에 소속된 교수인력 중 핵심저자로 3명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대학차원의 학맥을 형성할 필요조건은 갖추었다. 더욱이 명지대가 관련학과 학위논문 생산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위논문의 사제관계를 통한 학문의 사회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학맥형성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학과를 형성하는데 있어 학맥이 기본 바탕이 되지만 명지대가 대학차원의 학과가 될지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이다. 저자동시인용 분석 결과에 따른 군집형성관계를 살펴보면, 오치선·권일남 교수가 같은 영역에 묶이는 대신 조아미 교수는 심리학적 영역에 묶여 저자 간 근접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청소년학 내 학문공동체의 형성은 학과 형성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순히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데에 그치고 있다. 또 비록 학문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해도 엄격한 의미의 학문공동체는 아니다. 즉, 분명한 이념적 지향과 공동의 유대 및 집단정신을 공유하는 학문공동체는 아니어서 학문적 배경 및 소속 대학에 따른 느슨한 연대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일정한 연구주제 및 학문적 관심에 기초하여 특정 이론을 천착하고 이어가는 학술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아 질적 차원의 보다 엄격한 학문공동체 형성 및 이에 근거한 학과형성은 아직 요원하다. 따라서 이런 질적 측면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청소년학 학문공동체는 단순히 양적 규모의 차원에서 갖는 학문공동체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학이 학문 내 독립된 분과학문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적지 않은 학문적 숙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학문적 숙제는 청소년학이 갖는 학문의 성격, 곧 다학문적이고 간학문적인 성격이란 청소년학 자체의 한계로부터도 기인한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은 것은 청소년학의 연구주체가 학문으로서의 근원적 속성 곧, 학문의 과학성과 사회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연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노력은 청

소년학이 갖는 학문 본래의 한계를 극복하는 원천이자 동력이다. 반면에, 연구주체들이 청소년학을 학문으로서 성립하기 위한 이론적 정치를 꾸준히 일관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한, 오늘날 청소년학은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청소년에 대한 타 분과학문들의 종합적 성격의 연구분야로만 남겨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학과·전공 영역의 교수인력과 예비 연구인력, 청소년관련학회 등 일차적인 연구 책무성을 갖는 연구주체들은 청소년학의 학문적 성립을 위한 부단한 연구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학의 학적 체계와 이론정립을 위해 '청소년연구'뿐만 아니라 '청소년학 연구'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연구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학 연구의 학사적 접근과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따른 청소년학 연구주체와 관심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론은 그 이론의 형성배경이 되는 사회현실을 적극 반영한다. 즉, 특정사회의 시공간 내에서 사회흐름과 연구자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며, 그 결과로 연구주체와 관심을 형성한다. 따라서 학문의 학사적 접근은 해당 학문의 연구관심과 주제의 변천을 해명하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학문의 또 다른 지적 구조를 해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청소년학에 대한 시기별 학사적 접근을 통해 연구관심과 주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해명하여야 한다.

셋째, 저자동시인용분석을 이용한 학문의 지적 구조 해명 이외에도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해석학적·정신과학적 접근과 연구를 통해 청소년학의 지적 구조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학문의 지적 체계 대상은 단지 저작물만이 아닌 저작과 저작간의 연관관계, 그리고 저자의 지적 세계도 같이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문적 성격의 자명성과 지적 체계를 해명하는데 유용성을 입증한 해석학적·정신과학적 접근을 통해 비관적 의식으로 청소년학이란 학문의 지적 체계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학진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향후에는 청소년관련학과 및 전공 교수인력과 대학원생들의 전공저서, 학위논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자동시인용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한국 청소년학'의 학적 정체성과 지적 구조를 해명하는 다양한 접근과 연구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돈구 · 이삼열 · 송영배 외(1990). 해석학과 사회철학의 제 문제. 서울: 일월서각.
- 김영준(2007). 한국 언론학의 지적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저지동시인용분석 및 저지간 교류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희(1987).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수량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 제14권, pp. 93-130.
- 박광배(2000). 다차원적도법. 서울: 교육과학사.
- 오인탁(1990). 현대교육철학. 서울: 서광사.
- 오인탁 · 윤재홍(1992). 한국의 현대 교육철학의 전개. 서울: 성지출판사.
- 윤구호 · 서말숙(2001). 저지동시인용분석에 의한 1990년대 한국문헌정보학의 지적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 pp. 169-197.
- 윤문섭 · 안규정 (2003). 우리나라의 과학수준 및 구조의 특징: SCI 논문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R02-14).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윤재홍(1992). 교육학의 성격논쟁에 관한 학사적 연구. 서울: 성지출판사.
- 이명옥(1996). 저지동시인용분석을 이용한 여성연구의 특성 및 동향: 1985-1994년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2권 제1호, pp. 180-203.
- 이수범 · 권영순(2006). 우리나라 PR연구의 지적 구조에 대한 탐색적 연구: 저지동시인용분석을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제10권 제1호, pp. 229-261.
- 이수상(1999). 지식사회학의 연구방법으로서 인용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2호, pp. 1-24.
- 이은숙 · 정영미(2002). 복수저자를 고려한 동시인용분석연구: 정보학과 컴퓨터과학을 중심으로. 지식처리연구, 제3권 제2호, pp. 1-26.
- 이재윤(2006. 8.). 국내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새로운 지적 구조 분석법.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서울: 한국정보관리학회. pp. 145-152.
- 이재윤(2007). 지적 구조분석을 위한 MDS 지도작성 방식의 비교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 pp. 335-357.
- 이재윤 · 문주영 · 김희정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국내 기록관리학 분야 지적 구조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 pp. 345-372.
- 임형택(1991). 한국교육과정 학문공동체의 학문활동 분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명희(1992). 전문영역의 주제구조분석: 저자공인용에 근거하여. *도서관학*, 제22권, pp. 331-360.
- 조명희(1993). 저자공인용 매핑과 학문의 지적구조변화: 한국사 영역을 대상으로. *정보관리학회지*, 제10권 제1호, pp. 65-96.
- 차경수(1993). 청소년학 연구의 성격과 학문적 발전의 과제. *한국청소년연구*, 제4권 제1호, pp. 7-19.
- 최윤진(1993). 청소년연구영역의 탐색: 청소년활동현장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4권 제1호, pp. 20-35.
- 최충욱(1993). 청소년학 정립을 위한 시론. *청소년학연구*, 제1권 제1호, pp. 1-15.
-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청소년학회(1998). *청소년학 연구의 전망과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청소년학회(1999). *청소년학 정체성 확립의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청소년학회(2000). *새천년 청소년정책방향과 청소년학의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한완상·이기홍(1987). 한국사회학의 반성: 새로운 패러다임의 성격. *현상과 인식*, 제11권 제1호, pp. 171-216.
- 한준상(1992). 청소년지도론의 학문적 성격과 과제. 한국청소년연구원 편. *청소년지도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pp. 16-27.
- 한준상(1999 a). *청소년학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한준상(1999 b). 청소년학 연구의 세계적 동향과 청소년학의 과제. *청소년학 정체성 확립의 방향과 과제*. 서울: 한국청소년학회.
- 함종한(1992). *청소년학원론*.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Bellardo, T.(1980). The use of cocitations to study science. *Library Research*, Vol. 2, pp. 231-237.
- Borgman, C. L.(1989). Bibliometrics and scholarly communicat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 16, pp. 583-599.
- Hinze, S.(1994). Bibliometrics cartography of an emerging interdisciplinary discipline: The case of bioelectronics. *Scientometrics*, Vol. 29, pp. 353-376.
- Hopkins, F. L.(1984). New causal theory and ethno-methodology: Co-citation patterns across a decade. *Scientometrics*, Vol. 6, pp. 33-53.

- Kuhn, T. S.(1962).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조 형 (역) (1990). *과학혁명의 구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Kreuzman, H.(2001). A cocitation analysis of representative authors in philosoph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pistemologists and philosophers of science. *Scientometrics*, Vol. 51 No. 3, pp. 525-539.
- Lin, Y.(2004). Fragmentation of the structure of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Diversification or isolation? In L. L. Kaid, (Ed.), *Handbook of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Mahwah, NJ: Lawrence Erlbaum Publishers. pp. 69-107.
- McCain, K. W.(1984). Longitudinal author cocitation mapping: The changing structure of macro economic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35 No. 6, pp. 351-359.
- McCain, K. W.(1986). The paper trails of scholarship: Mapping the literature of genetics. *Library Quarterly*, Vol. 56 No. 3, pp. 258-271.
- McCain, K. W., & Whitney, P. J.(1994). Contrasting assessments of interdisciplinary in emerging specialities: The case of neural networks research. *Knowledge: Creation, Diffusion, Utilization*, Vol. 15, pp. 285-306.
- Mullins, N. C., Hargens, L. L., Hecht, P. K., and Kick, E. L.(1977). The group structure of cocitation clusters: A comparative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2, pp. 552-562.
- Nagel, E.(1961). *The structure of science: Problems in the logic of scientific explanation*. London: Routledge & College Press.
- Pritchard, A.(1969). Statistical bibliography or bibliometric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25, pp. 338-349.
- Scheuerl, H.(1992). *Der Charakter der Pädagogischen Wissenschaft*. 이종서·정영근·정영수 (역) (1993).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서울: 양서원.
- Small, H.(1973). Cocitation in scientific literature: New measure of relationship between two documen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Information Science*, Vol. 24, pp. 265-269.
- Small, H.(1993). Macro-level changes in the structure of cocitation clusters:

1983-1989. *Scientometrics*, Vol. 26, pp. 5-20.

White, H. D., & Griffith. B. C.(1981). Author cociation: A literature measure of intellectual structur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32, pp. 163-171.

Whitley, R. D.(1975). Components of scientific activities, Their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ization in specialisties and research areas: A framework for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cientific developments, in E. D. Knorr, et al. (Eds.), (1975). *Determinants and controls of scientific development*. Boston: D. Reidel Publishing Co., pp. 37-74.

ABSTRACT

A Study on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Youthology in Korea

Kim, Min*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vestigate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Youthology (that is 'youth science' or 'youth studies') from the 1990s onwards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762 articles in two major academic journals in the field of Korean youth science published from 1990's to 2006. This study used the author co-citation analysis as the major research metho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authors cited in 762 articles written in two major academic journals, 48 authors were selected as the core authors. The calculated figures were used as the input data for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multidimensional scaling, cluster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MDS was used to examine the core author's intellectual relationships in a two dimensional map and cluster. Cluster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were used to classify the represented authors, clustered by subject areas. In addition, the author co-cit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show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youthology in Korea. The results of multidimensional scaling were shown through a two-dimensional simulation model in the map, referred to hitherto as a 'map of science'. The map was designed to show "psychology" vs. "education,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studies"(axis X: academic background of core authors), and "adolescent or adolescent period" vs. "reciprocal action between adolescent and social environment" (axis Y: matter of concern or subject in youthology). Cluster

* SoonChunHyang University

analysis and factor analysis also revealed the main 5 core subject areas as the field of study on youth problems, the field of study on adolescent psychology, the field of study on youth education and culture, the field of study on social welfare and youth policy and the field of study on youth activity. On the basis of our main findings, this study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t is certain that the formation of the Korean academic community in Youthology centers around the social sciences.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youthology in Korea is also built upon the backs of education, sociology, psychology, and social welfare studies, respectively. These studies are in the main fields of the social sciences. Second, The finding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have implications for the work of youth leaders and youth researchers relative to adolescents.

Key Words : youthology, youth science, youth studies, intellectual structure, author co-citation analysis

투고일 : 3월 12일, 심사일 : 4월 19일, 심사완료일 : 5월 11일